



정찬주의 아쇼까대왕 유적기행 (4)

도리천 다녀오시는 붓다상 보니...

현장법사가 순례한 불교성지 우다야기리와 달리타기리

라트나기리를 답사한 일행은 버스로 30여 분 거리에 있는 우다야기리로 서둘러 간다. 우다야기리는 비루와 강변에 자리한 고팔푸르에서 5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불교 유적이다. 우다야기리도 역시 부처님과 아쇼까왕이 다녀갔을 터이고 7세기 중엽에는 현상이 순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새 점심시간이다. 우다야기리는 오지인 데다 아직 참배객이나 관광객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탓인지 가게나 식당이 한 군데도 없다. 답사일행과 동행하고 있는 현지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출발 전에 간편한 도시락이라도 준비한 게 다행이다. 현지인을 섬유했던 도곡거사에게 새삼 고마움을 느낀다.

그런데 우다야기리 입구 양편의 풀밭은 그늘이 없고 짐승들의 분비물이 널려 있어 일행이 편안하게 앉기에는 마땅찮다. 농가가 한두 채 보이지만 갑자기 들이닥칠 빌립 수도 없다. 도시락 음식냄새를 풍기는 것이 미안하지만 좀 더 유적지 쪽으로 올라가야 앉을 자리를 찾을 것 같다. 라트나기리가 언덕 하나를 중심으로 승가람이 조성되었다면 우다야기리는 여러 산봉우리안의 오목렌즈 같은 분지에 형성된 유적이다. 마치 중국의 오대산 오대(五臺)를 연상케 할 정도로 평화로운 기운이 감돈다. 절로 기도하고 싶어지는 신앙심을 추구하게 하는 천혜의 지형이다. 우다야는 '일출'이고, 기리는 '언덕'이란 뜻이니 일찍이 오래전부터 수행자들이 찾아들었던 양명할 언덕인 셈이다.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마다 일광여래를 마주친다고나 할까. 십여 년 전에 한중인문학회 회원들과 답사했던 동향의 막고굴들도 동향(東向)의 굴들로 일출의 햇살이 비쳐들 수 있도록 착굴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사면불 스투파로 유명한 승가람 터 우다야기리

점심공양 장소를 찾아 올라가는데, 보리수 뒤로 커다란 우물터가 하나 보인다. 안



각자 자전거를 타고 우다야기리로 견학 나온 여학생들

내문을 읽어보니 우다야기리에서 가장 오래된 3세기 때 조성된 우물터이다. 우물은 벽돌 모양으로 깎은 돌을 수조(水曹)처럼 직사각형으로 격조 있게 쌓았는데, 연중 수량이 일정치 않은 우물 속으로 내려가게끔 계단을 조성하여 두레박 없이도 물을 편리하게 길도록 만들어져 있다. 7평 정도의 우물 넓이로 보아 우다야기리에 살았던 대중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해본다. 우물의 수량과 대중 숫자가 비례한다는 사실은 우리 절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래서 물을 도리천의 영액(靈液)이라고까지 찬탄하여 감로수라고 부를 터이다.

우물 터 옆에는 초라한 힌두사원이 한 채 붙어 있는데 드러난 살림살이가 남루하다. 할 수 없이 일행은 유적지이지만 우물터 주변에 앉아 점심공양을 하기로 한다. 보리수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던 농부들 두어 명이 우리가 먹는 음식과 숟가락 젓가락질을 흥미롭게 구경하더니 가벼린다. 농부들의 인상이 순하고 무심하다.

이윽고 힌두 사두가 와 일행을 보고는 손을 흔든다. 인도인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사과를 싸들고 가 보시하자 웃으며 받는다. 한국인들이 이곳에 왔느냐고 문자 반갑게 대답한다.

"2년 전에 배낭을 멘 참배객이 왔어요. 이렇게 여러 명이 오기는 처음이지요."

일본인 승려들은 더러 온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힌두사원을 다 공개하겠다고 들어오란다. 그러면서 자신은 가난한 수행자이니가 보시하라고 한다. 보시를 요구하는 말투가 공기를 풍기지 않고 진심하게 느껴진다. 나는 당신의 복전이 돼주겠다는 태도이다.

우다야기리는 현재 1구역과 2구역을 발굴 중인데, 앞으로도 발굴할 구역이 16군데나 더 된다고 설명한다. 우다야기리에 18군데의 승가람이 있었다고 하니 대단한 불교 유적지가 아닐 수 없다. 일행은 발굴이 어느 정도 완료된 1구역으로 먼저 가본다. 1구역 초입에 마하스투파가 있다. 스투파로 오르는 돌계단 양쪽에 태극 문양처럼 판 것이 아름답고 더 특이한 것은 사면불(四面佛) 스투파이다. 10세기 때 완성한 스투파이지만 그 시초는 현장의 기록으로 보아 아쇼까 스투파가 아닐까 하고 짐작해본다.

현장은 자신이 다녀간 고팔푸르 일대에 아쇼까 스투파가 10여 기 정도 있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스투파 왼쪽 위에는 삼굴(三窟) 자세의 석조 보살상이 풀밭 노지에 서 있다. 삼굴이란 세 번 꺾었다는 말로써 목과 허리와 무릎을 꺾어 풍만한 신체를 돋보이게 한 간다라조각의 보살상 특징이다.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에스

라인을 강조한 자세라고나 할까.

스투파 뒤쪽 정면에는 석굴 법당이 있고 법당 문에 새겨진 조각이 선명하다. 특히 통통한 보살상의 머리에 코브라 다섯 마리가 보관처럼 조각돼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인도의 코브라는 동양의 용과 같이 영기(靈氣)를 상징할 터이다. 실제로 석굴 법당에 코브라가 산다고 현지인이 설명하지만 믿거나 말거나이다.

일행은 2구역으로 이동하여 1구역보다 큰 승가람 터를 보고 놀란다. 먼저 운주사에서 보았던 미얀의 와불 형상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삼굴 자세의 보살상이나 북처럼 생긴 타악기를 연주하는 악사상(樂士像)도 발굴현장에 누워 있다. 초입에 발굴한 승가람은 11세기에서 12세기의 유적이라는 안내문이 보인다. 지금도 발굴이 진행 중이고 한 방향은 원형 그대로 드러나 있다. 지위가 높은 수행자의 승방인 듯 좌선공간이 두 곳이며 흥미롭게도 비밀사물함이 하나 있다.

우다야기리를 답사하고 나오는 길에 여학생들과 마주친다. 자전거를 타고 온 여학생들인데 아마도 현장 학습을 나온 것 같다. 시골 여학생들이지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을 보니 개방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사면불 스투파 아쇼까왕 조성 추측 우다야기리 승가람 18곳 중 2곳 발굴

기원전 중추적 불교도시 달리타기리 불교유적 현재 10곳 발굴...풍광수려

기원전 2세기부터 불교 도시로 번영했던 달리타기리

우다야기리에서 5km쯤 떨어진 다음 행선지 달리타기리로 가는 동안 조그만 마을에서 벌이고 있는 힌두축제 현장과 마주친다. 사람들이 폭죽을 터뜨리며 행사용 트럭이나 승합차를 뒤따르고 있다. 일방통행에다 막무가내로 교통을 방해하지만 제지하는 경찰은 없다. 집단죄면이라고 걸린 것 같은 광란의 축제 모습이다.

달리타기리의 불교 유적은 기원 전 2세기 승가왕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트나기리나 우다야기리보다 시기적으로 훨씬 앞선 셈이다. 검은 유약이 발라진 도자기 파편에 아쇼까왕 때 사용했던 브라미 문자가 새겨져 있는 것이나, 달리타기리 스투파에서 부처님 유골이 담긴 사리함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된 것을 보아도 달리타기리가 기원전부터 중추적인 불교 도시였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사면불이 감설된 우다야기리 제 1구역의 마하스투파. 왼쪽위에 삼굴 자세의 간다라 양식 석조 보살상이, 뒷쪽에 석굴법당이 있다.



아전타석굴을 밖에서 재현한듯한 달리타기리의 말굽형 사원터



대승불교를 꽃피웠던 우다야기리의 제 2구역 승가람터

기원후에도 달리타기리는 6세기에서 11세기까지 번영했던 보마왕국의 수도였다 고 하는데, 불교유적지는 현재 10군데 정도 발굴되었으나 앞으로 얼마나 더 발견될 지 모를 만큼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다고 한다.

일행은 달리타기리까지 버스로 이동하면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하차한다. 라트나기리와 지형이 흡사하다. 평지에 솟은 야트막한 산에 불교유적지들이 남아 있다. 언덕을 하나 올라서자 타원형의 절터가 나타난다. 안내인이 달리타기리에서 가장 독특한 구조의 절터라고 설명한다. 말발굽 모양의 사원인데 중앙에는 법당, 양쪽에는 승방이 있는 구조이다. 마치 아전타석굴을 밖에서 재현한 형태와 흡사하다.

조금 더 올라가니 조그만 박물관이 있다. 박물관의 불상들은 대부분 문수보살상이나 보살상들이다. 나는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마야부인을 위해 설법한 뒤 상가시아로

일산을 쓰고 삼계보도를 내려오는 섬세한 조각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아마도 이 조각이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 싶다.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해 도리천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효성스런 부처님이 너무나 인간적인 것이다.

부처님 유골을 담은 사리함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된 스투파는 박물관 바로 뒤편 언덕 정상에 있다. 현지에서는 이 스투파를 아쇼까왕이 대동하고 다닌 장로의 사리함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부처님 사리함이라고 추정하니 조금은 헷갈린다. 그러나 사리함의 주인이 누구이든 내 추측이지만 이 스투파는 아쇼까왕이 조성하지 않았을 것 같다.

스투파까지 올라가 보니 달리타기리 주변의 들녘이 한눈에 들어온다. 달리타(Lalita)는 '아름답다'라는 뜻인데 과연 풍광이 유순하고 목가적이다. 눈앞에 펼쳐진 풍광이 한 폭의 수묵화 같다. 일행은 석양

이 지는 들녘을 향해 앉아 잠시 좌선삼매에 든다. 먼 숲에는 팥거머리가 지고 추수가 끝난 빈 들녘에는 저녁연기 같은 푸른 이내가 감돈다. 그 이내 속으로 황새 떼가 점점이 날아가는데 광란의 힌두축제 노랫소리는 바람결에 간단없이 들려오고 있다.

문득 사리불존자와 목련존자가 떠오른다. 사리불과 목련이 살았던 당시에도 왕사성에서는 바라문들이 주최한 산정제(山頂祭)가 밤을 새우며 계속되었고, 어린 사리불과 목련도 산정제에 참가했다가 광란의 춤과 노래를 보는 동안 '미친 듯 춤추는 저 사람들이 백년 뒤에도 저릴 수 있을까' 하는 무상감을 절감하고 그 자리에서 출가를 결심했던 것이다.



글=정찬주 · 사진=이일선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단체주문 책도 이재복 지음(270원) 정가 12,000원



사은 행사

정골요법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무료증정품



이재복 지음(270원) 정가 12,000원

이 운동으로 죽을 병 고친사람, 몸이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강해진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하면 제 병을 제가 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 운동은 무병장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살림 척추교정운동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녹아버리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골격이 비뚤어져서 생기는 병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내장질환의 발병원인은 골격이 비뚤어져 척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중다는 곳 다 다녀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도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의 종결 코-스

침, 뜸, 부항,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무중력감압치료, 수술을 받아도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받을 때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기립근육을 풀어주지 않고 척추의 토대인 골반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골격을 바로잡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십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좌골신경통, 갑상선, 관절통, 고혈압, 당뇨, 안면마비, 위장병, 수족냉증, 두통, 이명증, 전립선, 피부병, 백반증, 아토피, 알레르기, 건선, 부정맥, 만성피로, 상기증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20여년간 수십만명이 체험한 건강법을 지도 합니다. 단, 한번만 체험해 보시면 곧바로 확신이 옵니다. 이 운동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고 전신의 막혀 있는 경혈을 뚫어서 질병의 뿌리를 뽑는 법 수록
- ▶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발가락 운동과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척추(냉직)를 쉽게 푸는 법 수록
- ▶ 악어가족같이 단단해진 어깨근육, 기립근육 좌골근육을 아주 쉽게 풀어서 통증을 뿌리 채 뽑는 법 수록
- ▶ 양쪽다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손쉽게 바로잡아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 단침이 몽골몽골 솟아나며 전신의 자장을 높이고 몸속의 냉기를 확 뽑아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중다는약 다 먹어봐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몸속을 대청소하라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짙어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요법 공개!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짙~뿔아내서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 책 구입안내
책값 12,000원을 입금하시고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2권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예금주 김 순 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신면 구구리 901 소백산수련원

책신청 : (054)637-9810